

# '미술품 컬렉터' 하정웅 기증 작품 전시 영암 '河미술관' 다음달 문연다

## 군서면 구림리 6000㎡에... 2700여점 전시

'미술품 컬렉터'로 널리 알려진 재일교포 2세 사업가 하정웅씨가 기증한 주옥같은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영암에 들어섰다. 영암군은 "하씨가 지난 2007년부터 평생 수집한 미술 작품 기증을 계기로 군서면 구림리 부지 6000여㎡에 55억원을 들여 하(河)미술관과 게스트 하우스가 9월 3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하미술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과 수장고, 사무실 등을 갖췄다. 하씨는 한국에 대한 기도(祈禱)와 일제에 희생된 한국인의 위령(慰靈)과 진혼(鎭魂), 망향(望鄕)을 생각하며 수집한 작품을 광주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많은 기관에 기증했다. 하씨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와 각국의 역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등 총 2700여 점을 영암군에 기증했다. 개관 기념으로 '그리운 고향전(展)'이 내년 2월 28일까지 열린다. 계절에 따라 바뀌는 영암의 사계를 칠치폭포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이남 작가의 '영암의 사계-칠치폭포', 변종하의 '밤에 나는 새'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 상설 전시실에는 인간의 실존을 무수한 점과 선, 색으로 표현한 재일작가 손아유의 작품과 동강 하정웅 선생이 지원한 전화환·곽득준·이우환

등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재일작가의 대표작품도 볼 수 있다. 또 사갈의 '연인들의 꽃다발', 일본 공예작품, 왕인의 한일 역사를 표현한 세키네 노부오의 산화(散華) 등 이야기가 있는 미술품도 전시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하정웅 선생의 성(河)과 영암 구림마을을 상대표향의 물이 흘러 흘러 세계 미술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하미술관'으로 명명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명선기자 moon@

## 나주 천연염색 '쪽' 생활용품으로 변신

### 문화재단, 삼푸·치약 등 4종 상품화

천연염색의 대명사로 알려진 '쪽'이 생활용품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나주천연염색 문화재단은 최근 나주 쪽의 향균과 흡수 효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쪽 삼푸와 치약 등 생활용품 4종을 개발했다. 천연염색 재단은 쪽 효능을 극대화한 삼푸, 치약을 비롯해 세정제 2종 등 천연 향균제품을 상품화했다. 재단 측은 제품 생산에 앞서 공무원과 시민 등 260여명을 대상으

로 사용 실험을 한 결과 70~80% 가량이 만족했다. 또 임상 실험단은 제품을 다양화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면 시장 경쟁력도 충분할 것으로 평가했다. 나주시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료제, 가족 세균성질환 치료를 위한 천연 항생사료 첨가제, 천연염료용 이온교환 수지 개발 등의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쪽은 천연염색 원료로만 활용돼 왔으나 이번 제품 다각화

로 FTA 대체작물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쪽은 예로부터 항균성, 항습성이 뛰어나 이부자리, 책 표지, 비누 등 생활용품에 많이 쓰였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일명 사스·SARS)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쪽의 일종인 '대청'을 확대 배배하는 한편 치료제 개발을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정철원기자 chung@



초록터널 걸으며 여유 만끽

비가 갠후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초록 터널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손꼽히며, 지난 1월부터 유료화했다. <담양군 제공>

## 강진군 작천면 마늘농가 연구회 결성 경쟁력 강화

강진군 작천면 마늘재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회를 결성, 경쟁력 기틀을 마련했다. 강진군 작천면 마늘 연구회는 지난 21일 작천면 마늘 연구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강진군 마늘재배 면적은 327ha로 작천면과 신전면이 주산단지이다. 군은 마늘 생산단체의 조직화를 통해 연중 4251t을 생산해 148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등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토양에서 생산된 작천 마늘은 알이 굵고 단단하며, 독특하고 부드러운 특유의 향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작천 마늘연구회 조영민 회장은 "앞으로 지역특화 소득 작목인 마늘의 재배기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걸으면 건강 찾고 행복 충전"

### 담양보건소, 동호회 운영 회원 체중·복부지방 감소

"걸었더니 몸과 마음도 건강해 지고, 행복까지 충전돼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요!" 담양군이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 보건소는 12개 읍·면의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지난 3~6월까지 4개월 동안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충전 건강걷기 동호회'를 운영했다. 단초 500명 참가를 목표로 20

개 팀으로 시작했던 '건강걷기 동호회'는 시간이 지남수록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회원이 685명으로 늘었다. 보건소 장비를 이용해 참가 전·후의 팀별 기초체력 측정과 만족도 조사,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걷기 운동 후 참가자의 대부분이 체중과 체지방량, 복부지방량이 감소한 반면, 골격근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개 팀 중 수북면 팀은 골격근량이 2.9kg 증가했으며, 금산진료소는 체지방량이 10.5kg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취재본부=정대근기자 jgg@

# 전 북

## 전북대 수시 1차 경쟁률 6.8대 1

### 656명 모집에 4429명 지원

전북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1차(입학사정관 전형) 경쟁률이 6.8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93대 1보다 높아진 것으로 최근 수년간 크게 높아진 전북대의 대외 경쟁력과 평판도가 경쟁률 향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대는 "큰사람전형 등 4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원서접수를 8월 22일 오후 6시 마감한 결과, 656명 모집에 모두 442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형별로 보면 ▲큰사람전형은 396명 모집에 3192명이 지원해 8.1대 1 ▲지역화합인재 전형은 40명 모집

에 109명이 지원해 2.7대 1 ▲농·어촌 학생 전형은 127명 모집에 659명이 지원해 5.2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93명 모집에 469명이 지원해 5.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모집 단위별로는 큰사람 전형에서 사학과가 33대 1로 가장 높았고, 신문방송학과가 27대 1, 간호학과가 22대 1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북대는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학생부 교과성적 및 비교과 영역 평가와 2단계 심층면접 및 서류종합평가를 거쳐 수능 최저 합격기준을 적용해 오는 12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수해 쓰레기처리 '몸살'

### 10일간 3200여t 수거... 이달까지 마무리

군산시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데 이어 수해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시는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시 직영 청소차와 위탁 차량 등 총 478여대의 청소미화원 1920명을 투입, 수해쓰레기 3200t을 처리했다. 시는 연일 거뒀던 쓰레기를 모두 내초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다. 피해복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하루 100여t의 쓰레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침수피해가 컸던 문화동, 나은동, 흥남동 등 저지대 주택가 골목마다 아직도 젖은 침구류, 옷가지, 벽지, 장판 등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600~700t의 쓰레기가 더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쏟기로 했다. 군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위낙 큰 피해로 수해 쓰레기가 많아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분간 쓰레기 처리 상황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군산지역에 최고 444mm의 폭우가 쏟아져 10개 동에



도심속 첫 벼베기

전주지역의 첫 벼 베기가 지난 21일 전주시 호성동 하오마을 신동선씨의 논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 남원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남원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 재개된다. 남원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등의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고 26일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 남원점, 롯데슈퍼 남원점, 롯데슈퍼 노암가맹점 등 3곳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심야 영업

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남원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조례개정, 행정 절차법에 따른 의견수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협의 등을 거쳤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규모점포 등에도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정읍, 정주 고가교 내달 1일 전면 통제

호남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한 정주 고가교 철거공사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주 고가교는 당초 지난 11일 오전 7시부터 철거공사로 전면 통제됐으나, 13일 강우시 대체도로인 농소로 지하차도도 농업용수가 유입돼 침수되자 정주 고가교 철거공사를 연기

하고 일시적으로 통제를 해제했다. 시는 농소 지하차도의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26일 이틀간 농소로를 전면통제하고, 지하차도 양측에 11방기둥을 세워 길이 43m의 다리를 설치해 우천시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군, 내년 예산확보 총력전

고창군이 2013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23일 이강수 군수 주재 하에 전체 실과소장 및 담당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지구 조성(276억원) ▲북분자 테마체험장 건립(15억원) ▲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110억원) 등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예상되

는 17개 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처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 이강수 군수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3차 심의 및 국회 예결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므로 중앙정부와 연락을 통해 많은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 신

### '전주 소리축제' 웹사이트 개설

'2012 전주 세계 소리축제' 모바일 웹사이트(www.sorifestival.com/mobile)가 지난 22일 개설됐다. 전주 소리축제 모바일 웹은 사용자가 소리축제 공연 정보와 주요 소식, 공연 사진, 행사장 안내, 이벤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 세계소리축제 관계자는 "메뉴 바를 웹 상단에 올려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업그레이드 했다"며 "모바일 웹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첫 아파트 9월 입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안에 최초의 공동임대주택이 들어선다. 23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에 따르면 한성개발이 군산시 오식도면에 892가구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 9월부터 입주자 시

작된다. 평형은 16평형(120가구), 25평형(772가구) 등 2개 형이다. 아울러 인근에 2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2필지)도 내년에 착공, 경제자유구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 고창군,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고창군 전 공직자들이 온실가스 줄이기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탄소 포인트제 가입과 그린카드 발급에 적극 참여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가에서 전기를 절약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지

난 한해 총 1059t을 절감, 이산화탄소 449t을 감축했다. 소나무 8만9800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뒀다. 그린카드는 일반카드 기능에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매, 국·공립공원 등 이용시 그린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시, 공공요금 안전관리 '우수'

정읍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2년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을 시민의 물

가 체감함을 감안해 당초 인상을 보다 인상을 축소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특별 교부세를 물가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우선 선정 추진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